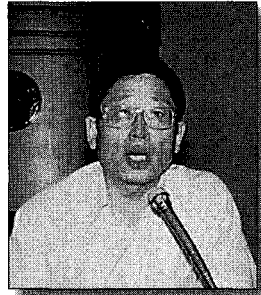


# 사슴의 주요 질병관리



김찬규  
〈역촌동물병원장〉

## 1. 소화기 질병(Digestive Disease)

### ① 제 1위 식체(Impaction of the rumen)

원인 : 탐식성이 강하고 힘센 사슴에서 오히려 많이 발생되며, 과식으로 인해 제 1위가 확장되어 수축력이 감퇴되고 소화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이다. 특히 농후사료(배합사료, 곡물 등)나 변질된 사료를 포식하였을 때 발생한다.

증상 : 식욕이 없고 되새김을 하지 않으며 운동을 기피하고, 침을 흘리거나 뒷다리를 뻗쳐 기지개 펴는 동작을 자주 한다.

치료 : 조기 발견하여 가볍게 운동을 시키거나 제 1위 운동 촉진제나 소화효소제 등을 주사하거나 경구 투여한다.

### ② 제 1위 산성증(Rumen acidosis)

원인 : 탄수화물사료(곡류 등)를 과식하게 되면 제 1위 내는 강산성으로 변하고 위 내의 유익한 균들이 사멸하여 균

형이 깨지면서 소화기 장애를 가져오는 질병으로서 주로 사료를 갑자기 변경하여 급여하거나 농후 사료를 과식하였을 때 발병된다.

증상 : 식욕이 없거나 절폐하며 우울하고 복부가 팽대되며 간혹 설사를 동반한다.

치료 : 중조를 투여하거나 위추출물 제제 등과 함께 효모균이 함유된 소화효소제 등을 투여한다.

### ③ 제 3, 4위 식체(Impaction of omasum and abomansum)

원인 : 오랫동안 사양관리를 잘못된 농장의 사슴들에서 나타나며 특히 허약한 사슴이나 노쇠한 사슴에서 발병되는 수가 많다. 또한 불규칙한 사료의 급여나 운동부족 등도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증상 : 원기가 없으며 식욕감퇴 또는 절폐하며 되새김을 하지 않고 간혹 설

사나 변비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1위 식체 등 전위의 이상이 오랫동안 경과 되어온 사슴에서 3, 4위 식체가 병발되기도 한다.

치료 : 사슴에서 3, 4위 식체가 발견되면 이미 오랫동안 이환된 경우로, 예후가 불량하므로 사양관리의 개선이 최선책이다.

#### ④ 급성 고창증(Acute tympany)

원인 : 발효하기 쉬운 두과 식물(콩과 식물)이나 곰팡이가 생긴 사료 등을 많이 먹었을 때 발생하며, 특히 목초나 풀 등을 베어다 즉시 급여하였을 때 발생하기도 한다.

증상 : 발효가스가 위내에 충만하여 복부가 팽대되고 심장을 압박하면 호흡장애를 초래한다.

치료 : 제 1위 가스를 가라앉히기 위해 가스제거제를 투여하고 질식의 우려가 있을 때는 투관침을 사용하여 위내의 가스를 제거한다.

#### ⑤ 식도 경색(Obstruction of esophagus)

원인 : 탐식성이 많은 사슴이 사료를 빨리 먹다가 사료덩어리나 이물이 식도에 정체되어 폐쇄되는 경우로, 간혹 알팔파큐브덩어리가 식도에 걸려 폐쇄되는 경우가 발견되었으며 어린 사슴의 경우 당근, 고구마, 호박 등 사료덩어리가 식도에 걸리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증상 : 갑자기 불안해하며 미친 듯이 날뛰거나 흉부에 경련을 일으키기도 한다. 몹시 괴로워하고 머리를 숙이고 침

을 흘린다. 때론 기침을 하기도 하며 물을 먹어도 코나 입으로 다시 나온다. 시간이 경과하면 위내 가스가 차서 고창증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치료 : 조기에 발견하여 위내로 쓰다듬어 내려보내거나 위 카테타나 이물 제거기로 위내로 밀어보낸다. 간혹 처치가 불가능하며 식도 절제술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창성성 위염(Traumatic gastritis)

원인 : 철편이나 못 등 예리한 물체를 먹어 주로 제 2위염을 일으키고 위의 기능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이다.

증상 : 갑자기 식욕이 부진하고 만성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을 나타낸다. 차츰 마르고 운동을 하지 않으며 우울해 하고 간혹 신음 소리를 낸다.

치료 : 확실하게 진단되면 제 1위 절개 수술을 통해 제 2위내 이물을 제거해야 하나 예방이 중요하다.

#### ⑦ 급성 위장염(Acute gastroenteritis)

원인 : 농후사료의 과식이나 겨울철에 얼어붙은 사료를 급여하였을 때, 사료의 갑작스런 변경, 특히 건초에서 생초로 전환 급여하였을 시, 부패한 사료를 급여하였을 때 등이 원인이 된다.

증상 : 식욕이 없고 침울하며 되새김도 잘하지 않고 등을 구부리고 서 있으며 점액이 섞인 설사를 한다.

치료 : 우선 절식시키거나 사료 급여량을 감량하고 양질의 건초나 청초를 급여하고 소화 효소제와 함께 정장제를

투여한다.

**⑧ 만성 위장염(Chronic gastroenteritis)**

원인 : 사양관리의 잘못이 주된 원인으로, 성장기에 있는 어린 사슴에서 많이 발병되며 주원인은 소화하기 어려운 사료를 채식하여 발병된다. 암사슴의 경우 분만전 제 1위 압박이나 난산에 의한 피로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되기도 한다.

증상 : 식욕이 저하하고 반추(되새김) 상태도 활발치 못하여 배만 부르고 몸은 여위어 간다. 계속적으로 묽은 연변을 배변하여 간혹 점액과 혈액이 묻어나온다. 피모는 거칠고 까칠하며 영양불량상태가 되고 어린 사슴은 성장 발육이 나빠진다.

치료 : 격리하여 소화가 잘되는 고양영 사료를 급여하고 질 좋은 청초를 급여한다. “알미늄 하이드록사이드”가 함유된 지사 정장제를 장기간 복용시킨다.

**⑨ 자록 하리증 (Diarhea in infant deer)**

원인 : 어미의 젖이 나쁜 경우에도 일어나며 비타민 A나 철분 등의 결핍도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일교차가 큰 5월경에 분만된 새끼가 습하고 추운 곳에 앉아있어 발병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원인중 분만시 배꼽 주위에 염증이 발생되어 열이 나고 물을 먹는 등 세균성 감염이 복합적으로 일어나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증상 : 젖을 먹은 새끼사슴의 변이 하얗게 소화 안된 상태로 배변되거나 분만후 2주 가까이된 사슴에서는 담황색

수양성 설사를 심하게 하여 궁둥이 부위는 설사 변으로 지저분하게 된다. 설사로 원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활동을 하지 않고 한곳에 주저앉아 있으며 영양상태도 급격히 저하되어 피모도 거칠어진다.

치료 : 전해질 물질이 함유된 수액을 주사해주고 소화정장제와 항생제를 투여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원인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⑩ 기생충성 설사(Parasitic diarrhea)**

원인 : 내부기생충 즉 위충, 선충, 조충 등 내부 기생충이 제 4위나 장내에 기생하여 발병된다.

증상 : 설사를 하며 영양장해로 마르고 식욕이 떨어지며 소화장애도 나타난다.

치료 : 구충제를 투여하고 재감염을 막도록 청결을 유지한다.

※ 구충제를 투여하고 정장 지사제, 항생제 등을 투여하여도 설사가 멈추지 않는 경우는 원충성 감염으로 인한 설사를 의심해 봐야 한다.

**⑪ 장독혈증(Enterotoxemia)**

원인 : 장독혈증균(Clostridium perfringens)의 독소가 원인이 되는데, 사료를 지나치게 많이 먹일 경우 발생되어 일명 “과식증”이라고도 한다. 사슴의 경우 봄철에 풀을 뿌리째 뽑아 급여하였을 경우 흙속에 있던 혐기성 균이 장관에서 증식하여 발생되기도 하며, 특히 곡물사료의 과식으로 인해 위장에 사료가 가득차 회장에 혐기 상태가 생기게

되면 균이 증식하여 독소를 형성하며 독소가 흡수되어 발병된다.

증상 : 체온이 상승하고 식욕부진 및 절폐하고 진행되면 심한 설사와 혈변을 발한다. 갑자기 발병하여 급사한다.

치료 : 설사를 동반한 혈변을 발하면 예후불량하며 사양관리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호흡기 질병(Respiratory disease)

### ① 급성폐렴(Acute pneumonia)

원인 : 일교차가 심한 시기에 분만된 새끼에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발병한다.

증상 : 새끼가 활동을 하지 않고 한곳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며 젖을 먹으려 하지도 않는다. 급작스럽게 원기가 떨어지고 고열과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불규칙하다.

치료 : 보온을 해주고 항생제, 해열제 등 대증요법으로 치료해주며 영양수액을 주사한다.

### ② 이물성 폐렴 또는 오연성 폐렴(Inhalation pneumonia)

원인 : 이물이 기관지 내로 연하되거나 흡입되므로서 발병되며, 약물이 구강으로 투여시 투약기술 미숙으로 발생하기도 하며 어린 새끼의 인공포유시에도 발생한다. 특히 녹용채취를 위한 절각을 위해 마취시 침이나 사료토출물이 역류하여 기관지나 폐로 흡입되어 종종 발생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증상 : 호흡곤란이 오고 기침을 하며 식욕과 원기가 없고 불안해하며 병이 진행되면 회백색 고름 모양의 콧물이 생기고 호흡할 때 악취가 난다.

치료 : 항생제나 설파제를 주사하고 강심 이노제와 영양제를 투여하고 안정을 시키면 경한 경우에는 차츰 회복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 폐혈증을 일으켜 폐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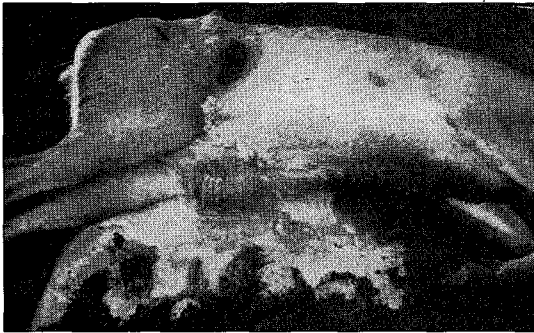


▲ 오연성 폐렴으로 과사된 폐

### ③ 폐농양(Pulmonary Abscess)

원인 : 발정기 때 난동으로 빨에 흥부를 받쳐 발병되는 수도 있으며, 갑작스런 소음, 진동 등에 놀라 뛰다가 사슴장 철망이나 시설물 등에 타박으로 인한 좌상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흥벽의 좌상 혹은 늑골 골절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내출혈로 인한 울혈이 흡수되지 못해 염증을 일으켜 폐렴까지 침해하고 만성적으로 이환되어 폐에 고름이 형성된다.

증상 : 차츰 마르며 간헐적으로 기침을 하며 운동을 기피하고 식욕이 떨어지며



▲ 복부 밖으로 나온 농양

병이 악화되면 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나타낸다.

치료 : 타박을 받아 좌상이나 골절이 있었을 때 즉시 항생제나 항염제 등을 주사하고 강심이노제 등을 투여하여 2차적 감염을 막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충증 (Lung worm disease)

원인 : 기관지 내에 기생하는 선충 (metastrongylidae)에 의한 만성 호흡기 질병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슴에는 실과 같이 가느다란 사상폐충 (Dictycaulus viviparous)이 기관지에 기생한다. 중간 숙주는 줄지렁이로서 목초와 함께 섭취되면 피낭자충이 소화관내에서 탈낭한 후 장간 막림프선, 림프관, 순환계, 폐, 기관을 거쳐 기관지에 도달, 성충이 된다.

증상 : 계절에 관계없이 기침을 하며 만성호흡기 증상을 나타낸다. 사슴이 야위어 가며 수개월간 기침을 계속하는 것은 폐충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치료 : 지렁이를 구제하고 감염 우려가 있는 목초를 먹이지 말아야 한다. 구충제로는 레바미졸 (Levamisole)을 피하주

사나 경구 투여하면 효과가 있다.

⑤ 진균성 호흡기 감염 (Aspergillosis)

원인 : 곰팡이가 핀 건초를 먹거나 흡입하였을 때 발병되며, 여름철 우기에 사료통의 곰팡이나 사료에 곰팡이가 증식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증상 : 여러 마리가 기침을 하며 식욕과 원기가 급격히 저하되지는 않는다. 곰팡이 사료를 많이 채식한 사슴은 안면에 곰팡이성 피부염을 병발시키기도 하고 간염을 초래하고 곰팡이 중독증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치료 : 이차적인 감염을 막기 위해 항생제를 투여하고 영양제 (아미노산제, 비타민 B제제, 강간제 및 당질)를 투여하며 탄닌산이 함유된 청초나 나뭇잎을 많이 급여토록 한다.

⑥ 전염성 비기관염 (Infectious bovine rhinotracheitis)

원인 : IBR virus가 병원체이며 우사와 인접한 사슴장에서 간혹 발병된다.

증상 : 동작이 활발하지 못하고 식욕이 감퇴되며 체온이 상승하고 호흡이 빨라지며 장액성 콧물이 흐르며 콧속이 빨갛게 충혈되거나 피가 섞여 나온다. 침을 흘리며 기침을 가끔하여 안구 결막이 충혈되고 눈물을 흘린다.

치료 : 발병된 사슴은 빨리 격리하여 치료하되 2차적 감염을 막기 위해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한다. **만능양분**

<다음호에 계속>